

재난공동체 일본

SNU일본연구총서 17

재난공동체 일본

초고령·재난 사회에서 돌봄과 유대의 재편

초판 1쇄 발행 2024년 12월 31일

편저자 박승현·지은숙·권숙인

펴낸곳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주소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도서주문 02-889-4424, 02-880-7995
홈페이지 www.snupress.com
페이스북 @snupress1947
인스타그램 @snupress
이메일 snubook@snu.ac.kr
출판등록 제15-3호

ISBN 978-89-521-3880-4 94330

978-89-521-1086-2 (세트)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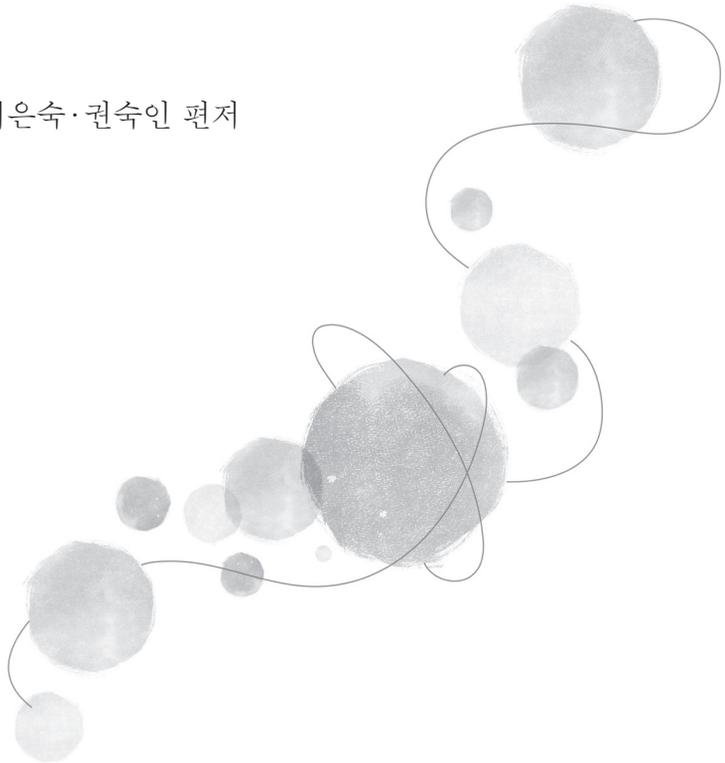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연구는 2020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관정일본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재난공동체 일본

초고령·재난 사회에서
돌봄과 유대의 재편

박승현·지은숙·권숙인 편저



Rebuilding Japan, a Disaster Community

Park, Seung-hyun

Jee, Eunsook

Kweon, Sug-I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초고령·재난 사회 일본

2024년 새해 첫날 이시카와현 노토반도(能登半島)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가옥과 마을은 파괴되었고 여진의 공포가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을 위협했다. 2024년 1월 17일 고베에서 개최된 한신아와지대진재(阪神淡路大震災, 이하 한신대지진) 추도식은 노토반도 지진의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것이기도 했다. 고베 시민들은 한신대지진이 발생한 새벽 5시 46분에 이어서 노토반도 지진이 발생한 오후 4시 10분에도 묵념을 하며 ‘함께(ともに)’, ‘고베에서 노토(能登)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1995년 발생한 한신대지진은 아와지섬 북부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7.3의 대지진이었고, 도시직하형 지진의 궤멸적인 파괴 속에 6,43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신대지진 이후 3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1월 17일 즈음 고베 지역에서는 대지진의 교훈과 힘겨운 복구의 경험이 풍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기억과 추모, 연대의 물결이 출렁인다. 1월 17일을 전후로 재난 지역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이 고베로 모여들고, 한신대지진의 자장 속에서 재난과 부흥의 네트워크가 일본 전역을 잇는다. 한

신대지진 당시 23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희생된 간세이가쿠인대학교는 재해로부터 10년이 지난 2005년 1월 ‘인간의 부흥’을 연구 이념으로 하는 재해부흥제도연구소를 설립하고, 해마다 1월 17일 즈음 전국 피재지 활동가 및 NPO, NGO, 연구자들의 연대 속에서 원탁회의를 열고 있다. 변화가 모토마치(元町)에 위치하는 고베 마치즈쿠리 회관 갤러리에서는 때맞춰 ‘재난의 전시’가 개최된다. 2023년에는 참사 100주년이 된 관동대지진 석판화가 전시되었다. 갤러리에는 고베 재난의 역사뿐 아니라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진재(東日本大震災, 이하 동일본대지진) 이후 재난 복구의 과정을 담은 사진과 그림도 전시되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는 1945년 8월 15일 패전 이후를 가리키는 ‘전후(戰後)’와 비교하여 ‘재후(災後)’라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총리 대신 자문기구로 설치된 동일본대지진부흥구상회의는 보고서 「부흥을 위한 제언: 비참함 속의 희망」에서 “파괴는 전조도 없이 찾아왔다. (...) 일순간의 공포가 지난 후에 수습할 수도 없는 공포가 찾아왔다. 전례 없는 사태의 발생이다. 그리하여 이 나라의 ‘전후’를 계속 떠받쳐 온 ‘무언가’가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다”라고 대지진의 충격을 표현했다(東日本大震災復興構想會議 2011. 6. 25).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및 오염, 도쿄전력과 정부의 대응을 둘러싼 일련의 문제가 노정되면서 경제 우선주의, 지방의 희생을 요구하는 통치 시스템 등 전후 일본 사회에 내재되어 있던 구조적 모순들이 분출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는 국가적 공공성이 어떻게 ‘공공’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가에 대한 각성을 촉구한 사건이었다.

‘재후’라는 문제의식은 1995년 한신대지진 이후 고베가 던진 질문이기도 했다. 지진 사망자의 상당수가 오래된 목조 가옥이 무너져 압사한 것으로 밝혀지자, 사회적 약자가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왔다는 것

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있었다. 재해로부터의 부흥을 위한 정책과 대규모 도시 개발이 도리어 재해 후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역할을 담아 ‘부흥재해’(塩崎賢明 2014)라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고, 이는 오늘날 보통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

한편, 한신대지진 이후 고베는 시민사회 활동의 중심 무대이자 전국 피재지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었다. 당시 전국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은 피재지의 일상 회복을 위해 힘을 보탤고, 부흥과 재생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전례 없는 연대와 참여 속에서 1995년은 ‘볼런티어의 원년’으로 기록되었다. 구조와 구호의 과정에서 많은 외국인이 지역사회 생활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자각이 생겨나기도 했으며, 이후 고베 지역은 지자체 다문화 공생 실천의 구심점이 되었다.

일본 사회는 반복되는 재난의 경험과 집합적인 기억, 그 불안과 염려마저도 공유하는 ‘재난의 공동체’(박승현 2020)다. 코로나19도 재난의 연속선상에서 복합적인 재난 상황의 일부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대처 역시 그러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에 지진 피해가 있었고, 이 복합 재해의 상황에서 비대면 구조와 구호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하기도 했다. 피난소는 밀폐·밀집·밀접의 3밀(密閉·密集·密接, 三つの密)을 피하라는 방역 지침을 지키기 어려운 가장 취약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대재난의 경험은 한편으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동력이 되어 왔다. 비평가 후쿠시마 료타는 전쟁과 재난 후의 시기를 부흥의 에너지와 생기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대”라고 기술한다. 나아가 새로운 시점과 방법론을 끌어들이 재난의 흔적과 기존 시스템에 신선한 활기를 불어넣고, 부상당한 사회를 일으켜 세운 창조적인 부흥 문화의 역사적 계보를 짚는다. 그리하

여 그는 재난이 지나간 후의 “흔적의 시공간”을 다양한 사색과 표현으로 발현하는 특별한 “역사의 웅덩이”라고 표현한다(후쿠시마 료타 2020). 그 ‘웅덩이’에서 리베카 솔닛이 2012년 “재난 유토피아”라고 개념화한 재생(再生)과 유대(絆)의 언어들이 흘러나왔다. 재난의 상황은 관습적인 사고가 깨지고, 지배적 규범과 기존의 질서에서 일시적으로 해방되는 순간이며, 숨은 갈등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사회적 격동의 순간인 동시에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 공적인 삶, 기존 질서를 뒤집는 연대의 가능성이 열리는 순간이다. 기존의 사회체계가 무너진 비일상적 상황에서 이타적 감정과 유대, 공적인 삶과 시민사회에 대한 열망, 또 다른 세상의 가능성을 열어 가게 되는 것이다.

일련의 대재난이 일본 사회의 취약성을 드러낸 외부적 충격이었다면, 내부적으로 초고령화는 취약한 구성원의 생명과 생활을 지탱하는 일본 사회의 역량을 시험했다. 2024년 1월 고령화율 29.2%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 초고령화와 그에 따른 사회변동을 겪고 있다. 돌봄과 유대의 재편은 대규모 재난이 연속되는 가운데 더욱 긴요한 주제가 되었고, 성장주의 사회에서 잔여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에 머물렀던 ‘복지’의 영역은 생활세계 변동의 중심점이 되고 있다.

고령자나 빈곤층 등의 사회적 약자는 자연재해에서 그러했듯,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가장 취약한 처지에 놓였다. 동시에 그 약한 고리가 끊어지면 공동체 전체가 감염의 위협에 처하기에 누구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서로의 생명을 지키는’ 공동체의 유대가 강조되었다.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비대면 상황은 일상의 고독과 고립을 증폭했고, 돌봄노동이야말로 비대면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새삼스러운 깨달음도 있었다.

1975년에 간행된 『노인(お年寄り)』은 일본을 배경으로 미국과 일본의 노년 경험을 비교한 연구다. 저자 에드먼 팔머와 마에다 다이사쿠는 미국 노인이 노화를 숨기려 하는 것에 비해, 일본 노인은 장수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두 사회의 노년 경험을 대조적으로 기술한다. 저자들은 일본의 전통적인 경로문화가 산업화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지위를 유지하는 원동력이라고 분석하며 사회통합적인 일본의 노년을 그렸다(어드먼·팔머·前田大作 1988: 169).

그러나 저자들이 개정판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분석은 일본 노인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장밋빛으로 그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본 사회에서 나타나는 부모와 기혼 자녀의 높은 동거율은 가족 내 노인의 지위와 역할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어 ‘사회통합적인 일본의 노년’으로 분석되곤 했으나, 혼자 사는 고령자보다 자녀 세대와 동거하는 고령자의 자살률이 높다(上野正彦 1981)는 조사 결과 등이 곧 이를 반박했다.

일본은 이미 1970년에 고령자가 인구의 7% 이상인 고령화사회로 진입해 있었다. 그러나 당시 고령인구 부양은 본격적인 사회문제가 아니었다. 이른바 ‘일억총증류’의 정점에 있었던 1973년에는 복지 원년이 선언되고 노인의료비 무료화가 공표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1973년은 오일쇼크로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이 막을 내리는 해이기도 했다. 또한 1970년대 후반부터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지고, 출산율은 저하되었으며, 단독 세대 비율이 늘어나는 등 전업주부의 무상노동에 기댄 ‘가족복지’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배우자특별공제 등 성역할 분업을 강화하려는 정책들이 잇달아 강화되었지만 이미 시대착오적인 것이었다.

노인 돌봄이나 케어로 번역되곤 하는 ‘개호’는 한국에서는 쓰이

지 않는 용어다. 일본어사전 고지엔(広辞苑)에도 1983년 제3판까지는 없었으나 1991년에 간행된 제4판부터 ‘개호’라는 단어가 게재되었으니, 일본에서도 개호는 현대적인 신조어다(岩本通弥 2017: 92). 장수화가 본격화되고 돌봄을 떠맡을 가족 자원이 빈약해지는 가운데 개호는 일본 사회를 설명하는 핵심어로 부상했다. 개호 살인, 개호 동반자살, 개호 이직과 퇴직 등이 사회문제화되고 일본인의 가장 큰 걱정이 ‘노후’가 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개호의 사회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으며, 2000년도에 개호보험제도가 실시된다. 2000년도 일본 고령화율은 17.2%로, 일본 사회는 이미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진입해 있었다. 개호보험제도는 처음부터 지속 가능성의 우려 속에 개시되었고, 초고령화는 순식간에 일본 사회의 가장 무거운 과제가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주목하면서 이번 공동연구는 재난의 경험과 초고령화라는 문제를 생활자의 눈높이와 복지라는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재난과 초고령화가 드러낸 취약성(vulnerability)의 문제를 사회적인 것의 회복, 혹은 새로운 공동체를 통한 유대와 결속으로 풀어 가려는 일본 사회의 노력을 아래로부터 다각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이 이 공동연구의 취지다. 이를 위해 1995년 한신대지진 이후 반복되는 재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초고령화의 진행과 더불어 재난의 위협이 일상화되어 있는 초고령·재난 사회 일본에서의 돌봄과 유대의 재편을 고찰하고자 한다.

공동연구의 결성과 진행

이 공동연구는 2019년 6월 간세이가쿠인대학교 한일공동세미나를 계기로 한일 간 복지인류학의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시작되었다. 세미나에서는 ‘외국인 개호자와 개호 로봇’ 등 최첨단의 사회적 적응력을 요하는 개호 현장의 돌봄노동, 한일 고령자 돌봄제도의 비교 및 남성의 가족 개호, 일본 사회의 지역재생과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연구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오와 미에(大和三重) 교수와 야마 요시유키(山泰幸) 교수의 안내로 효고현 아시야시(芦屋)의 개호시설, 도쿠시마현 히가시미요시초(東みよし町)의 마을재생과 지역예술 현장 등을 견학했다. 이 현지 조사를 계기로 한일 공동 복지인류학 연구의 긴요함을 공유하며 공동연구팀을 결성하게 되었다.

공동연구팀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관정일본연구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초고령사회, 재난사회 일본의 생활세계의 재편과 재생: 1995년 대지진 이후 한신 지역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연구책임자: 권숙인, 공동연구자: 박승현, 지은숙, 야마 요시유키, 오와 미에)”에 착수했다. 그리고 일본 필드워크를 공동의 과제로 삼아, 학술적이며 실천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연구 축적이 미비한 복지인류학의 연구 영역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2020년 3월 1일 연구 개시와 함께 공동연구 자체가 코로나 19 팬데믹이라는 ‘재난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다. 현지조사가 가능해지기까지 기다리며 연구 기간 연장을 거듭하였고, 한편으로는 온라인 회의를 통해 주제를 조율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주요한 문제의식으로 부상했다. 어렵게 만들어 낸 공동연구의 성과들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의 학술활동과 연계하여 학술대회 및 대중강연, 워크숍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표될 수 있었다. 2021년 12월 6일 열린 <코로나19 위기 속 일본 사회의 일상과 돌봄> 오픈강좌에서 박승현은 “자숙의 의미와 실천: 일본 코로나19 방역 일상의 탐구”를, 야마 요시유키는 “일본 고령자의 사회참여 문제: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를 발표했고, 공동 연구팀이 모여 라운드테이블 대담을 진행했다.

2021년 3월부터 1년간 오와 미에 교수는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방문학자로서 서울에 체류하였고,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에서 “초고령 사회에서 고령자 복지의 현상과 과제”를 제목으로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2022년 3월 일본연구소 국제학술대회 <포스트 재해 — 부흥 시대, 동아시아 재해인문학의 가능성>에서 야마 요시유키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일본 사회”를 주제로 한 기조 대담에 참여하였고, 박승현은 “자숙의 공기: 코로나19 방역과 일본이라는 세켄(世間)”을 발표했다. 이렇듯 연구팀은 대면 활동의 제약 속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공동연구의 끈을 놓지 않고 진전시켰다. 2022년 11월에 열린 일본연구소 학술대회 <초고령화 일본, 다층적 삶의 경관>에서 지은숙이 “고령화 시대의 사회운동과 여성 주체의 부상”을 발표할 즈음에 이르러 연구자들 간의 본격적인 대면 교류가 재개될 수 있었다.

이후 공동연구물의 출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의식을 같이하는 박경민과 김경화가 합류했다. 두 연구자의 참여 덕분에 이 책의 폭과 깊이가 더해질 수 있었다. 일본어로 작성된 원고의 번역에는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강사 김민의 도움을 받았다. 무엇보다 관정이중환교육재단의 연구지원과 관정일본연구사업을 통해 공동연구의 성과를 발표할 기회를 제공해 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에 감사를 표한다.

책의 구성

이 책은 크게 ‘돌봄의 주체와 객체’, ‘고령화와 지역공동체의 재편’, ‘팬데믹 속에서 드러난 과제’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전체 3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I부 ‘돌봄의 주체와 객체’는 개호를 둘러싼 정책과 제도, 실천과 인식의 전환에 대한 인류학적 분석을 담는다. “웃는 얼굴, 상냥하고 밝은”: 돌봄노동의 글로벌화와 외국인 개호인재”에서 박경민은 2000년대 이후 일본 사회의 돌봄레짐과 외국인 이주노동자 정책을 둘러싼 이주레짐의 변화를 포착한다.

일본 사회의 인구 변동에 따른 이주레짐의 변화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14년 이른바 마스다 보고서가 야기한 ‘지방소멸’(増田寛也 2014) 논쟁은 인구 감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로컬아베노믹스, 지방창생의 정부 정책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으나 인구 급감은 막아야 한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인구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희망출산율 1.8’의 달성이었고, 일본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을 방해하는 요소를 정책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마스다 보고서에서 인구 감소의 대응책으로 이민은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1.26으로 1947년 통계 집계 후 가장 낮고, 출생아 수도 1899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80만 명 이하로 집계되었다. 제2차 베이비붐 시기인 1973년 출생아 수가 209만 명에 달한 것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보다는 높지만, 출산율 반등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통하지 않는 가운데 2024년 1월 민간의 경제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전략회의는 2100년 총인구 8,000만 명을 목표로 하는 ‘인구비전2100’(人口戦略会議

2024. 1. 10)을 발표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노동을 목적으로 입국해 영주·정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과 정책의 사령탑 설치를 강조했다는 점이다.

오늘날 일본에서 이민은 가장 논쟁적인 주제가 되었다. 정책용어로서, 또한 학술용어로서 이민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출입국 정책은 일관되게 “이민 정책은 취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2019년 “사실상의 이민 정책”이라 할 특정기능 2호의 재류자격이 신설되었고, 이를 통해 단순노동자의 기한 없는 체류 연장과 가족 형성이 가능해지면서 ‘이민국가 일본’ 논쟁은 본격화되었다. 일본 정부가 지자체로 전가해 온 외국인 사회통합 과제 또한 더는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주레짐의 변화를 배경으로 박경민의 글은 돌봄을 둘러싼 노동 현장의 참여 관찰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단순·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출입국 정책 전환의 함의를 살펴본다. 특히 일본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이 문화 차이, 젠더, 종족, 노동 표상과 관련하여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조명하고, 젊은 외국인 비숙련 여성 개호인재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외국인 인재 조건의 변화를 분석한다. 일본 사회가 외국인 인적 자본을 선택적으로 재정의하며, 돌봄노동자의 자격과 조건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통합 없는 수용(immigration without integration)’의 현재를 비판적으로 기술한다.

나아가 박경민의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어 온 돌봄노동의 글로벌화와 일본의 선택(권숙인 2009: 210-211)이란 맥락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구미와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는 이주 여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돌봄노동을 담당해 온 것에 비해 일본은 “하나의 변칙적 사례”였다. 일본이 동남아시아로부터 개호인재를 수용하기 시작한 것은 이

“변칙”에서 일단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방식이나 정도에서 나타날 ‘일본적’ 특징에 대해선 향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할 만하다.

박경민이 돌봄노동 제공을 둘러싼 상황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지은숙은 “자립과 의존을 둘러싼 모색의 40년: 고령사회 여성운동의 어제와 오늘”에서 돌봄을 받는 쪽이 구성하는 돌봄 담론에 주목한다. ‘고령화 쇼크’, ‘장수의 재앙’과 같은 표현에서 보듯 노년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길어졌지만, 장수화는 노골적으로 ‘문제’로 취급되고 타자화되었다. 그러나 고령자들이 거대 연령집단이 되어 긴 노년을 함께 살아가는 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첨단 사회현상이며, 미지의 세계다. 그 가운데 커다란 사회적 영향력을 끼친 것 중 하나가 길어진 돌봄의 시간이다. 돌봄의 시간은 돌보는 쪽에서나 돌봄을 받는 쪽에서나 고령사회 대부분의 구성원에게 찾아오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지은숙은 돌보는 쪽과 돌봄을 받는 쪽을 구분하는 대신, 돌봄의 주체와 객체를 되묻는 것을 통해 오히려 돌봄의 상호관계는 주체와 객체로 구분될 수 없으며, 돌봄이란 상호작용 속에서 비로소 성립하는 사회적 행위라는 것을 강조한다.

지은숙이 현장연구를 수행한 ‘더 나은 고령사회를 위한 여성의 모임(Women’s Association for a Better Aging Society, 이하 WABAS)’은 1983년 발족해 고령사회 여성운동의 대중화에 앞장서며 노인 돌봄의 탈가족화와 사회화를 주도한 시민운동 단체다. 지은숙은 40여 년간 전개해 온 WABAS 활동이 동시기 노년 여성의 대안적 표상으로 부상한 ‘귀여운 할머니’ 담론과 어떻게 맞물리고 경합하는가에 주목한다. 그리고 아내, 딸, 며느리로서 돌봄을 제공했던 회원들이 나이 듦에 따라 돌봄을 받는 입장이 되어 ‘귀여움’에 호소하지 않고도, 어떻게 존엄을 지키면서 타인의 돌봄을 능숙하게 받아들이는가를 탐구한다. 이는 단기간에 장수 혁

명을 겪은 사회에서, 여성이 돌봄 제공자에서 돌봄 의존자로 위치가 변경되고 역할이 전환되는 과정을 해명하려는 시도다.

제II부 ‘고령화와 지역공동체의 재편’은 일본의 시민사회와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오와 미에와 야마 요시유키의 연구로 구성된다. 코로나19 속에서 지역사회 현장을 필드워크한 이들 연구는 고령자의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공공의 움직임, 편안한 익명성 속에서 결성되는 느슨한 돌봄의 연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와 미에의 “우리 동네 ‘모임터’: 고령자의 고립 예방과 교류의 장”은 재택생활을 하는 요개호(要介護) 고령자의 지원체계, 의료와 돌봄의 결합 등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위한 지역포괄시스템 구축의 과제를 검토한다. 한신대지진 이후 가설주택의 고령자가 고립사(孤立死)하는 사건이 증가하면서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했다. 오와 미에는 이러한 역사적 교훈이 스며들어 있는 고베시 등 한신 지역을 중심으로 팬데믹 거리두기 가운데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커뮤니티 케어의 양상을 관찰한다. 특히 일본 각지에서 시도되고 있는 ‘모임터(通いの場)’ 만들기를 고찰하며, 그 중심에 있는 NPO법인의 활동과 그 역할에 주목한다.

야마 요시유키의 “퇴직한 남성들의 지역 데뷔: 철학카페와 대화 장소 만들기”는 연구자 스스로 지역에 뛰어들어 공공성의 담지자가 되는 현장을 보여 준다. 일본에서 철학카페는 한신대지진을 계기로 시작되어 동일본대지진 이후 도호쿠의 재해지역을 중심으로 퍼져 나갔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온라인을 포함해 전국으로 일거에 확대되고 있다. ‘이야기 나눌 장소’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상황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야마 요시유키는 행정과 협조하여 본인이 개설한 효고현(兵庫県) 다카라즈카시(宝塚市)의 ‘철학카페’를 중심으로, 이른바 ‘회사

인간(대부분 남성)이 60세를 넘겨 그동안 소원했던 지역과 새롭게 관계를 맺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지역 데뷔’ 양상을 조명한다. 필자는 철학카페의 실천을 통해 행정의 사각지대를 메우며 아래로부터 새로운 공공성을 구축해 나가는 시민사회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2000년대 이후 일본 사회에서는 신자유주의적인 행정개혁과 함께 ‘새로운 공공성’(齋藤純一 2000)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새로운 공공’은 전후 일본체제를 이끌어 온 국가와 시장, 가족의 실패 속에서 그 공백을 메워 줄 제3 영역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는 개념이다. 일본 사회에서 새로운 공공이 추진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서 다양한 비영리 섹터가 지역사회에 이미 건설한 생활 운동의 저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꼽을 수 있다. ‘공익을 추구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표방하는 NPO단체들이 제도와 행정을 지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중간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공(公)과 공(共), 사(私)의 경계가 모호한 제3 영역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오와 미에와 야마 요시유키의 연구에서 보듯, 대학이 지역으로 연계될 수 있는 매듭 역시 NPO법인이다. 한신대지진과 재난 구조의 과정을 계기로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도 상기하고자 한다.

제III부 ‘팬데믹 속에서 드러난 과제’는 초유의 감염병으로 사회불안과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일본 사회에서 수면 위로 부상한 문제들을 기록한 두 편의 글로 구성된다.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을 선언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의 시련이었지만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기대 속에 있었던 일본 사회의 혼란은 더욱 컸다. 공교롭게도 팬데믹이 선언된 2020년 3월 11일은 동일본대지진 발생 이후 9년이 되는 날이었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부흥’의 도쿄올림픽을 기대하고 있던 일본 사회에서 코로나19는 두 번째 ‘3·11 재난’이었다.

“돌봄과 감시의 동거: 코로나19 사태와 ‘자숙경찰’”에서 김정화는 글로벌 팬데믹 당시 일본 사회에서 불거진 자숙경찰 현상을 통해 사회적 돌봄과 감시(surveillance)가 공존하는 기술사회의 양상을 검토한다. 다른 나라들은 주로 정부가 직접 방역을 위한 도시봉쇄와 별칙 등 강화된 법과 규제를 시행하고, 시민들은 이에 반대하여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양상을 보였으나, 일본 정부는 시민들에게 ‘자숙’을 ‘요청’했다. 그러자 이를 적극 수용한 시민들이 자숙 기간 중 영업을 하는 가게에 “자숙하라”는 경고 문구를 붙이는 등 자숙경찰까지 등장해 문제시되었다. 자숙경찰이란 방역을 위한 자숙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주체를 사적으로 감시·적발·공격하는 일종의 자경단 활동을 말한다.

자숙경찰의 등장은 한편으로 동조압력이 강한 일본 문화가 반영된 현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팬데믹 국면에 개인 간의 상호 감시가 정당성을 확보한 전 세계적인 경향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일상적인 상호 감시에 방역이라는 사회적 정당성이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감시사회의 새로운 국면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일본 문화와 감시사회라는 서로 다른 두 담론 공간에서 자숙경찰의 함의를 검토하는 한편, 한 발 더 나아가 디지털 기술의 진보에 따른 일상적 상호 감시의 확대라는 차원으로 논의를 끌어들이으로써 자숙경찰의 함의가 ‘돌봄 감시’라는 보편적 국면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하여 자숙경찰이라는 일본의 특수한 현상이 감시사회 심화에 대한 성찰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우머노믹스와 여성 불황: 코로나19로 돌출된 여성 빈곤”에서 박승현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부각된 여성 빈곤을 연구의 출

발점으로 삼아, 2000년대 이후 언론과 방송을 통해 보도된 여성 빈곤의 쟁점들을 분석한다. 2020년 4월 첫 번째 긴급사태선언으로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스테이 홈, 영업자숙에 따른 고용 불황은 여성 노동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했다. 여성 차별적인 제도와 정책, 가부장제 가족주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의 영향 속에서 여성 빈곤은 일본 사회에 뿌리 깊게 존재해 왔다. 그러나 경제성장기의 성별 분업 속에서 고용과 임금의 젠더 격차는 당연시되었고, 사회 문제화되지 않았다. 이 글에서 필자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부각된 여성 빈곤을 조명하며, 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고용 관행과 젠더의식이 여전히 쇼와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회적 정체(停滯)를 분석한다. 또한 고용과 임금의 젠더 격차에 초점을 맞추어, 코로나19 팬데믹의 특수한 상황에서 여성 차별적인 노동시장의 모순이 드러났음을 고찰한다. 팬데믹 속에서 드러난 일본의 여성 빈곤은 가족 등 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여성 차별적인 노동의 역사가 만나는 지점에서 분출했다 할 것이다.

2019년 연구의 기획단계에서 권숙인, 박승현, 지은숙은 도쿠시마 현 히가시미요시초의 마을재생 사업과 효고현 아시야시의 고령자 개호 시설 등을 함께 돌아보면서 일본 연구의 인류학적 연구 주제로서 ‘복지’가 갖는 가능성과 중요성을 실감했다. 오랫동안 소득 증대나 국제화 등 외형적 성과를 지향했던 일본 마치즈쿠리 사업의 초점이 ‘복지’와 ‘돌봄’, ‘연대’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편 잇따른 재해의 충격과 초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적응’처럼 보이기도 했다. “재난 시 누구를 가장 먼저 구조하고 구호해야 하는가”, “재난 시 누가 가장 취약한가”, “돌봄 네트워크를 만들고 유지하는 공동체의 힘은 어떻게 길러지는가”를 질문하고 답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지

역의 구성원들을 보면서, 절박한 필요와 진심 어린 노력이 산출하는 새로운 연대와 공동체의 가능성을 포착하는 연구를 해보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책은 코로나19라는 재난을 함께 겪은 공동연구의 산물이며, 여기에는 사회적인 것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애쓰는 ‘과제 선진국’ 일본의 오늘이 담겨 있다. 재난의 공동체를 살아 내는 일본인의 생활세계 감각, 우리가 경험한 변화의 직접성과 접촉성이 독자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

2024년 12월

박승현·지은숙·권숙인

서문 5

제1부 돌봄의 주체와 객체

제1장 “웃는 얼굴, 상냥하고 밝은” | 박경민

1. 일본의 개호 이주노동자	28
2. 국제 이주노동의 여성화와 돌봄노동	35
3. 일본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정책과 돌봄노동	39
4. 외국인 개호노동자의 자격과 조건	48
5. 개호인재의 문화적 표상과 실재	65
6. 통합적 이주노동자 정책의 필요성	74

제2장 자립과 의존을 둘러싼 모색의 40년 | 지은숙

1. 고령화사회와 여성운동의 1막	78
2. ‘귀여운 할머니’를 바라느니 세상을 바꾸겠다	82
3. 고령사회의 상징이 된 ‘귀여운 할머니들’: 낀상·낀상	88
4. 자립적 여성의 나이 들과 돌봄 의존자 되기	92
5. 돌봄 의존자로 살면서 알게 된 것들: 야마다 요시코 씨의 경우	98
6. 오히토리사마와 고령사회 여성운동의 2막	103

제III부 고령화와 지역공동체의 재편

제3장 우리 동네 ‘모임터’ | 오와 미에

1. 초고령사회, 고립화의 진행과 그 대책 110
 2. 일본 고령자가 사람들과 교류하는 방법 113
 3. 사회적 고립과 ‘모임터’ 120
 4. NPO법인의 중간 지원 126
 5. 모임터의 사례 131
 6. 앞으로의 과제 139
 7. 다양한 모임터를 확보하기 위한 협동의 필요성 144
-

제4장 퇴직한 남성들의 지역 데뷔 | 야마 요시유키

1. 재해 지원과 공공인류학 148
2. ‘철학카페’란 152
3. 대규모 재해와 철학카페 155
4. 노인복지센터와의 협동 실천 158
5. 철학카페의 운영 161
6. 철학카페의 역할 169
7. 공공인류학의 실천 171

제III부 팬데믹 속에서 드러난 과제

제5장 돌봄과 감시의 동거 | 김정화

1. 일본의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자숙경찰’	178
2. 자숙경찰을 보는 두 가지 관점	181
3. 자숙의 문화, 자숙의 역사	183
4. 글로벌 팬데믹과 ‘돌봄 감시’	189
5. 돌봄과 감시의 동거	197

제6장 우머노믹스와 여성 불황 | 박승현

1. 코로나19와 일본 여성 빈곤의 돌출	200
2.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과 열외의 빈곤들	204
3. 헤이세이의 ‘어느 가족’들	207
4. 미디어 보도, 빈곤의 쟁점들	211
5. 여성에게 집중된 코로나19 고용 불황	215
6. 고용과 임금의 젠더 격차	219
7. ‘더 이상 쇼와가 아니다’	222

참고문헌	227
찾아보기	245
Abstract	249

제1부

**돌봄의
주체와 객체**